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예비 고1, 중1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교육 기사를 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접했습니다. 올해가 2022년인데 2022 교육과정 개정이 논의 중이라는 얘기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을 올해 결정하고 바로 시행하기에는 조급하지 않나 싶어서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교과서나 대입 제도는 안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_우경미(가명·45·서울 서초구 서초동)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학년 중1·고1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대입에는 2028학년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1999년 발표된 7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 필요할 때 부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2007, 2009, 2015 등 연도로 구분하며, 이는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해가 아니라 교육부가 고시·발표한 해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올 하반기 세부 내용을 확정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목 구조나 내용이 바뀌는 만큼 교과서가 달라지며, 수능의 출제 범위와 구조, 수시 학생부 평가 기준 등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 공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2024학년 1·2학년, 중·고등학교는 2025학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된다"고 전합니다. 교과서도 같은 해, 같은 학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새 교육과정이 반영된 대입은 2028학년, 즉 2025학년 고1이 고3 수험생이 되어 치르는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큰 틀은 2024년 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MORE TIP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고교학점제 도입입니다. 현재보다 더 폭넓은 과목 선택권을 가지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과 달리 수업에 참가해도 성취도가 부족하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한 것으로 처리되며 미이수 과목이 많을 경우 진급이나 졸업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11년간 진행하는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 즉 1학기로 축소하는 한편 중3 2학기를 진로를 모색하고 고교 생활을 준비하는 진로 연계 학기로 운영하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수시도 정시 라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비 고2 학부모입니다. 선배 학부모로부터 수시 원서도 정시 라인을 기준으로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시 원서를 쓸 때는 수능을 치르기 전인데 어찌 정시 원서 라인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시 원서를 구성하라는 말인가요?

_김나연(47·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정시 지원 기준으로 잡고 이에 따라 수시 원서를 구성합니다.

수능 성적 예측 지표로 6월,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많이 사용합니다. 수능을 실제 출제하는 평가원이 주관하고 고3 학생들 외에도 N수생들이 많이 응시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과 가장 비슷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신고 허준일 교사는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점수로 잡고 이 점수대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에 1~2장, 이 점수대보다 높은 대학과 학과에 1~2장씩 수시 원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성적이 오르는 추세이거나 재수도 각오한다거나 하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소신, 상향 지원 원서를 늘리고, 성적이 불안하거나 반드시 수시에서 입시를 끝내고 싶어 하는 학생의 경우 안정 지원 원서를 늘린다”며 실제 수시 원서 구성 방식을 설명합니다. @

MORE TIP

재학생들이 수능에서 모의고사와 비슷한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원서 구성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허 교사는 “재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안 좋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모의고사 점수대로 수능 성적이 나올 거라고 여긴다. ‘재수 불사’라고 말하는 학생을 설득하기가 쉽진 않다”고 고충을 전합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